

# OpenDoors

06

2023

VOL.254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 북한선교현장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만큼 고아들을 살리겠어요'

### 박해와 선교현장

카자흐스탄(Kazakhstan)

### 박해뉴스

나이지리아 / 중동·북아프리카

### 현장스토리

중국 : 오픈도어 파트너의 중국 지하교회 청소년 기도 캠프 방문기  
인도네시아 : 청년 캠프를 통해 젊은이들이 축복을 누리다  
나이지리아 : 레아 샤리부를 기억하며 2023 (영상)

### Heart To Heart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오픈도어위클리 / 어린이 박해지도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다함께 함께 기도하자



##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김성태 목사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최근에 찰스 스펀존, 허드슨 테일러, 찰스 스터드, 윌리암 캐리, 에미 카마이클, 존 패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엘리자베스 엘리엇, 허드슨 테일러 등의 자서전과 관련 동영상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당대의 교회지도자, 선교사로서 후대에 항구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지속적인 감명과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에 한 가지 뚜렷한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 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창설자가 되는 브라더 앤드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브라더 앤드류의 본을 받아서 일곱 가지 선교회의 기본 가치강령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가치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분들의 안위와 교회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사역은 많은 경우가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진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 정신 때문에 선교현장에서 직접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현장 사역자들과 전 세계 교회에게 고난 받는 교회의 실상을 알리며 기도와 후원 사역

에 종사하는 사역자들 간에 종종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모금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업무 특성상 되도록 많은 것을 알리려 하고, 선교의 최전방에서 직접적인 사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모든 면에서 극도의 조심스러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도어선교회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극복케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과 쿠르드 족의 갈등은 그 지역에 존재하던 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장 교회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희망센터 운동을 벌여왔고, 많은 무너진 교회건물을 복구하며, 모든 것을 잃은 교인들이 새롭게 정착하여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기술과 총체적 제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에서 일어난 강진의 피해로 수 십 만 명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센터 운동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 재할복구운동을 하게 했던 섭리적인 손 길 가운데 강진의 피해를 만나 고통을 당한 교회와 교인들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핍박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0년도 초에 제 삼국을 통해서 북한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접촉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찬송가와 신앙자료들을 요청하였던 북한교인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 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북한교회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요청에 의한 다양한 선교프로젝트와 선교물품들이 북한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북한교인들을 돕는 사역은 오픈도어선교회 내부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사역이며 모든 사역이 북한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약 60여 종의 신앙서적과 성경주석 및 북한어 성경 등 약 600,000여 권이 북한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수 만 개의 전자기계 등이 보급되었지만 그 어떤 자료도 지상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선교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북한지하교회를 조직화 하고, 전국적인 거점과 연결망 등을 갖추었지만 그 어떤 것도 공개적으로 논

의 된 적이 없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있어서 북한선교 사역은 철저히 가리어진 사역이며 오직 북한교회와 교인들의 안위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렇듯이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사역에 전 세계의 후원교회와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신실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만큼 고아들을 살리겠어요'

### 06 박해와 선교현장

-카자흐스탄(Kazakhstan)

### 13 현장스토리

-중국: 오픈도어 파트너의 중국 지하교회 청소년 기도 캠프 방문기  
-인도네시아: 청년 캠프를 통해 젊은이들이 축복을 누리다  
-나이지리아: 레아 샤리부를 기억하며 2023 (영상)

### 17 박해뉴스

나이지리아 / 중동·북아프리카

### 20 Heart to Heart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 오픈도어위클리 / 어린이 박해지도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 2023년 06월호 | 통권 254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김영복 목사

이사회: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문민환, 황자경,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이제나, 이다니엘, 송레아,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간사

발행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김셋별

## SUPPORT

###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만큼 고아들을 살리겠어요’

계속되는 위험과 코로나19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픈도어는 계속해서 은신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 북한 기독교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 의료지원, 목회 돌봄, 그리고 성경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짧은 시리즈를 통해 3개의 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편인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만큼 고아들을 살리겠어요’입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 유산의 가정에서 자라온 한 북한 남성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간증을 세상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주님께 엄중한 서약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저는 살면서 중국에 두 번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죠. 구원에 감사하며 이 간증을 써내려 가기로 했어요. 중국에 오기 전에 저는 북한의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고 싶다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저는 당에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며 충성을 다했어요. 저의 이웃들과 같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말이에요. 저는 그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사랑의 감정도, 위안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아프

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저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신 그분의 사랑에 정말 감사해요.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는 저의 삶을 바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침실 커튼을 치고, 무릎을 꿇어 누군가에게 얘기하곤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지 보려고 할 때 마다 아버지는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와 “예수 사랑하심은”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해요. 이 기억들은 사실 제가 기독교 집안 출신인 것을 확인해주었어요. 저는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고 북한에 있는 자녀들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제 삶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매일 아침 죄를 회개했고, 지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어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시죠. 저에게 기쁨과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어 조급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제가 충실한 종으로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훈련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저는 고아, 아픈 아이들, 그리고 꽃제비(북한에서 구걸하거나 떠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들을 향해 연민 어린 마음을 가장 많이 느껴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요. 요즘 제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찬 듯 느껴져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곳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싶어요.

1.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킬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가족과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언젠가 저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헌, 찬양, 그리고 기도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만큼, 저는 33명의 고아를 거두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언약을 지키도록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때가 왔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내 몸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제가 예수님께서 귀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위의 세가지 서약을 지키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처럼 저희 가정이 사랑의 교회로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

세요. 저의 남은 일생을 바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북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편지는 명료성을 위해 수정이 되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1.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변화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신처를 운영하고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2. 이 형제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3. 하나님께서 그가 서약을 지키고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기독교 박해 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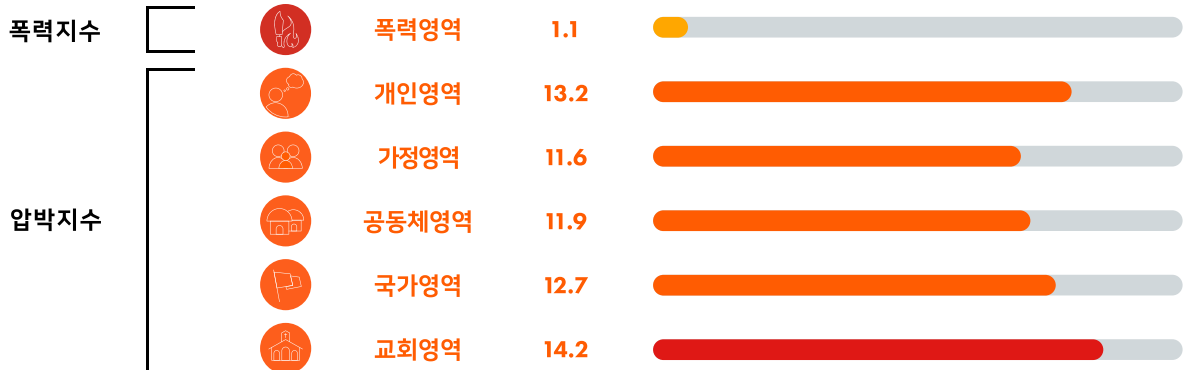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48 위

## 카자흐스탄(Kazakhstan)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2011년 9월에 도입한 제정법에 따라 제한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위협을 구실로 더 많은 감시, 모임 습격, 그리고 체포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러시아 정교회는 카자흐스탄 주민들과 접촉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있어서 가장 적은 문제에 직면한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토착 기독교 개종자들은 국가,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다.

# 카자흐스탄 (Kazakhstan)

## 국가 정보

지도자 : 카심 조마르 토카예프 대통령

인구 : 19,205,000 명

기독교인 수 : 4,876,000 명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876,000	25.4
이슬람교	13,567,000	70.6
불가지론	587,000	3.1
민족종교	30,500	0.2

구 소련 공화국인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독립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2010년 이래 정부는 더욱 독재적으로 변했다. 이것은 억압적인 정책, 실제적인 항의의 부재, 그리고 엄격한 대중매체 통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에 토카예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주요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이며 카자흐인들은 이슬람교도가 되기로 되어 있다. 이는 특히 시골 지역 기독교 개종자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을 이슬람교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카자흐인들은 이슬람 교리 보다 전통을 따르고 70년 동안 이어진 구 소련 무신론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며 정부는 확고하게 세속적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이는 북부 지역에 거대 러시아 소수 집단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기독교인들 중 90% 이상이 러

시아 정교회에 속한다. 카자흐스탄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정치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기독교 정당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9월에 도입된 종교 담당 국무처의 법안은 종교 단체들의 재등록을 요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활동을 금지하며 국내의 종교관련 자료 생산 및 보급 제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여름캠프와 같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당국은 예배를 습격하고 설교가 “종교적 불화를 선동한다”면서 처벌하고 “불법 선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들을 구금한다. 2011년 법안을 더욱 엄격하게 했을 수 있는 제안된 개정안들을 포기하면서 2019년부터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더욱 존중되어 왔다. 소수 집단들과 종교자유원탁회의가 열렸고 종교 범죄에 대한 행정 고발이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종교법에서 개정된 부분들이 국가의 종교 검열을 더 확대시키고 국가에 등록된 예배 장소를 벗어나서 종교적 모임을 갖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 지역별 상황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을 표적으로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권리 침해는 국가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도시 밖의 지역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압박이 더 심하다.



## 박해받는 성도

###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러시아 정교회는 카자흐인들에 대한 복음전도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유가 있고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정교회에 곤란을 주어 러시아를 도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정부의 규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압박에 직면한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회중은 등록되지 않았고 습격, 위협, 체포, 그리고 당국에 의한 벌금 부과에 직면한다. 복음전도에 적극적인 경우에 특히 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 독재 정치:

오로지 국가가 통제하는 종교 기관들만 허용된다. 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종교 집단들, 특히 헌정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세로 여기는 개신교의 성도들을 습격하고 체포한다.

### 민족 종교의 적대감과 혼합된 이슬람의 탄압: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때때로 폭력을 경험한다. 이것은 집에서 감금을 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들은 (당국의 지지 하에) 개종을 카자흐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많은 개종자들이 새로운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 가기로 결정한다.





##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 여성

카자흐스탄 법은 남성과 여성에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남성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전통주의적 견해들이 만연하다. 성차별 기반 폭력, 일부다처제, 조혼 및 강제결혼, 신부 납치, 그리고 만연해 있는 가정 폭력을 다룰 충분한 대책들은 많지 않다. 여성 개종자들은 더 심한 수준의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 괴롭힘, 위협, 그리고 가택 연금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이슬람교인한테 강제 결혼을 당하는 것은 드물지 않고 가끔 납치와 연결된다. 여성들은 높은 실업률과 제한적인 재정적 자립으로 인해 이와 같은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 납치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 가택연금
- 폭력 - 신체적 / 언어적

### 남성

남성은 공공 영역에서 더 높은 정도의 책임을 갖는 경향이 있다. 남성이 경험하는 종교 박해는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구조를 반영한다. 그들은 심문, 벌금, 구금, 그리고 감금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이슬람교인이 다수인 국가의 매우 통제된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의 병역 의무는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들에 의한 압박을 경험하는데 일반적으로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적

구타를 직면한다. 실업도 개종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부양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 기독교 관련 자료, 가르침, 의식에 대한 접근 제한
- 상속 또는 소유 제한
- 교육을 통한 차별과 괴롭힘
- 일/ 직업/ 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민병 징집/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

## 카자흐스탄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48	65
2022	47	64
2021	41	64
2020	35	64
2019	34	63

카자흐스탄의 기독교 박해점수는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에 비해 1점 높아졌다. 이것은 주로 공동체영역과 국가영역에서 압박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두 영역에서의 생활은 두개의 주요 박해 원인인 독재 정치와 이슬람의 탄압으로 지배당했다. 이슬람교인인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압박하는 동안에 정부는 교회 활동에 많은 규제를 부과한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최소 두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 한 여성이 토착민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슬람교인 택시 기사에 의해 강간과 구타를 당하고 살해당할 뻔했다.
- 정보원들은 대부분 시골 지역에 있는 25명의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개종자들이 자신의 이슬람교인 친척들과 지역사회에 의해 괴롭힘에 직면했다고 보고했다.

보고 연도	강간 당한 / 강간 및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구금 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2023	1	2	25
2022	0	8	31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풀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치 뒤에 표시를 붙였고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도 있다.

### 개인 생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과 카자흐스탄 문화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된다. 시골 지역에서 개종자들은 물리적 폭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삼가고 개종했다는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숨긴다. 비전통적인 개신교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쉽게 기소 당할 수 있다.

### 가족 생활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 차별 대우를 당하고 이슬람교의 아이들은 흔히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권고 받는다. 부모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이슬람 수업을 참석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복음주의를 포함한 소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을 퍼뜨리는 “파”들의 싸움에 대한 국가 보조의 집회를 주기적으로 주최한다. 이러한 모임은 자발적인 것으로 추측하지만 모든 이들은 참석하도록 강력한 권고를 받는다. 기독교 가정에서 카자흐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체 생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감시를 당하고, 심문을 당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당국에 의해 감시당하고 습

격을 당한다. 성도들은 불법 종교활동을 이유로 위협당하고, 벌금에 처하거나 구금을 당할 수 있다. 이들은 전과가 남으면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당한다.

### 국가 생활

헌법은 국가가 지원하는 종무국과 러시아 정교회를 인정한다. 이외 모든 종교 공동체들은 2011년도 법에 따라 재등록을 요구당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비전통적 기관들이 공적인 기반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 교회 생활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학교와 비정부기구(NGOs)들은 허용 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에 의해 실행되는 모든 사회사업은 아웃리치의 형태로 간주되고 반대를 받는다. 종교 문헌을 출간하거나 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카자흐스탄은 아래의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카자흐스탄은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 비전통적 교파의 교회들은 습격을 당하고 참석자들은 임의로 체포를 당한다 (ICCPR 제9조, 18조, 21조)
- 종교 문헌에 대한 소유권과 협의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제한 이상으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다 (ICCPR 제18조, 19조)
-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활동들은 당국과 주변의 지역사회에 의해 감시를 당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납치와 이슬람교인 남성에 의해 강제 결혼 당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ICESCR 제10조)





##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카자흐스탄은 헌법에서 세속국가로 정의한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슬람 수니파의 하나피 학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이슬람교를 실천하는 이들을 포함한 비전통적 종교 집단들을 제한한다.



### 카자흐스탄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의 박해 받는 교회들을 주로 이와 같이 강화합니다:

- 문헌 배부
- 기도 지원
- 성경 훈련
- 어린이 / 청소년 훈련
- 여성 사역
- 옹호 및 인식 훈련 (SSTS)
- 실존 훈련
- 직업 훈련
-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젝트

4월부터 오픈도어위클리(모바일 주간지)를 통해서 기독교 박해지수(World Watch List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50개국의 박해와 선교현장 자료를 순서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위클리는 카카오톡 채널 채널추가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박해와 선교현장 자료는 홈페이지의 '기독교 박해' 란의 '월드 와치 리스트'로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중국\_

### 오픈도어 파트너의 중국 지하교회 청소년 기도 캠프 방문기

2018년에 중국은 18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신앙을 실천하거나 교회 예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면서 종교부에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고 제자화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오픈도어의 파트너들 중 한 명이 중국 서부의 한 도시에서 열린 청소년 기도 캠프(3일 일정)를 방문했습니다. 파트너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젊은 신자들이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나라와 가족과 다른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강력했죠!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젊은 신자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일부는 고아이며 다른 친구들은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거절당한 아이들이었죠. 캠프가 끝날 때 즈음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았어요. 그건 제가 본 가장 믿기 힘든 장면들 중 하나였어요.”



### 기도해 주세요

**01.** 본 기도 캠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것은 국가가 부과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 특히 젊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간증이에요.

**02.** 중국에 있는 젊은 이들이 제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03.**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다음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감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04.** 하나님께서 중국의 다음 세대들을 보살피고 목회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만한 인연, 자료, 그리고 도구들을 제공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인도네시아 청년 캠프를 통해 젊은이들이 축복 을 누리다

이번에 진행된 대면 청년 캠프는 샤리아법의 지배를 받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에 이번 청년 캠프는 이들이 같이 강화되고, 회복되고,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젊은 신자인 찰스와 그의 친구들은 2년 동안의 여행 제한 이후에 2022년도 청년 캠프가 대면으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청년 캠프에서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다른 기독교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캠프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남성과 여성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교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찰스는 남녀가 함께 모일 때 따라오는 반발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가 주립 대학에 합격하자 그의 부모는 매우 기뻐했고 아들이 성취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찰스는 낭그로에 아체 다루살람(아체 주로도 알려짐)에 도착했을 때 상당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그의 고향과는 다르게 아체 주는 이슬람 사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샤리아법의 지배를 받는 유일한 주입니다. 찰스는 매 주일 교회에 가고 원하면 언제든지 동료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은 그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면 이름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종교에 대해서 비 이슬람교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면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학생에게 세우는 주인들은 별로 없어서 지낼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과정의 요건인 인턴십을 찾을 때도 이슬람교가 아닌 이들은 이슬람교인들과 동일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만 몇 안 되는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조건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을 권했고 안타깝게도 일부 학생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과 비 이슬람교 활동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멸적인 분위기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삶에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아체 주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대면 청년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현지 파트너들은 전년도 캠프 때 발생한 현지 사회의 일부 반발로 캠프를 다른 주에서 여는 것이 더 신중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개의 대학에서 온 70명의 학생들은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로 300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9-10시간의 여정 후에도 이들의 열정과 간절함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2년의 시간이 지나 이 시간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집회는 이들이 회복되고 강화될 수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기독교인 친구들(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이 항상 간절히 바랬던 경험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3일 동안 진행된 청년 캠프에서 강의와 조별토론 시간부터 교제 시간과 게임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누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참가자 중 한명인 길버트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 청년 캠프는 최근 메말라진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친밀함을 다시 세워가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또 다른 청년 일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사분께서 저희의 정체성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실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되

있어요. 강의를 통해 넘어져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죠. 넘어졌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패를 포함한 모든 일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시죠.” 처음 접한 강의를 통해 감명을 받은 존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인간의 실패, 갈등에 대한 진실,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 저의 사고 방식을 바꾸어 놔어요.” 이는 그들의 삶과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번 청년 캠프에서는 용서에 대한 순서들이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평범한 순서처럼 보였지만 끝날 무렵 강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도전 받자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린 열리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끝나고 그날 밤 열리나는 너무 화가나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명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해친 그 사람을 경멸해요. 그는 진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갚지 않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분노로 가득 찼었죠.”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들 중 한 명이 열리나를 보살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눴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열리나는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열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제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그를 용서하는 방법을 매일매일 배워갈 거예요.”

이는 정말 청년들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희망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테레지아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청년 캠프 동안 저는 모든 힘들을 기도에 쏟아붓고 친구들과 나누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이 청년 캠프가 매년 열리면 좋겠어요. 저와 제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람로라는 또 다른 학생은 테레지아가 말한 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 캠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해 적용하고 유지해 갈게요.”

## 기도해 주세요

**01.** 아체 주에서 보게 되는 변화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지역사회는 비 이슬람교인들에 대해 더 관대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년 동안의 영적전쟁에 대한 첫 열매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02.**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기독교 학생들과 함께 하며 이들에게 돌파구도 마련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번창하고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다가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 학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턴십을 찾는 가운데서 모든 졸업 요건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나이지리아 레아 샤리부를 기억하며 2023

2018년, 레아 샤리부는 14살의 나이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레아는 북부 나이지리아에 있는 다프치 지역의 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다른 여학생들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 소녀들은 악명 높은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무장세력들에 의해 납치를 당했습니다. 한달 간의 합의 끝에 소녀들은 풀려났지만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레베카는 레아에게 전하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레아야, 엄마란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아멘. 네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너를 위해 밤낮 기도하고 있어..."

"저는 레아가 한 선택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요. 레아가 믿음으로 굳건히 섰던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희는 레아를 위한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레아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님

들, 그동안 레아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구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감사해요."

엄마 레베카가 딸 레아에게 전하는 편지를 영상을 통해 함께 들어주세요.

영상 보기 →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에서 "레아 샤리부를 기억하며 2023"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기





## 나이지리아\_1년 후: 나이지리아 대학생 살해 혐의로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다

채널추가하시고 매주 전세계의 기독교  
박해뉴스를 받아보세요.



기독교인인 대학생 데보라 사무엘이 왓츠앱의 게시물 때문에 급우들에게 살해당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가해자들 중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12일, 데보라는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에 위치한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이슬람교 급우들에 의해 제기된 신성 모독 혐의로 공격을 당하고 살해당했다. 그녀는 소코토 세후 샤가리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왓츠앱 그룹 채팅방에서 음성 메시지를 게시했는데 이는 급우들의 화를 돋았고 이들은 나중에 그녀를 위협했다. 무리는 데보라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몸에 불을 질렀다. 곧 두 명의 용의자들이 체포되었고 보석 가능한 '범죄음모 및 대중 항의 선동' 혐의를 받았다.

경찰 대변인(Prince Olumuyiwa Adejobi)이 트위터를 통해 국가의 정의 실현은 신속하다고 말한 뒤로 나이지리아인들은 데보라의 죽음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데보라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과 기소가 결여된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고질적이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피해자들이 나라의 북쪽 지역의 기독교인들인 경우에 특히 더 그렇다." 오픈도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법률 전문가 존 사무엘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반복되는 폭력과 정의의 결여를 가장 강력한 의미로 규탄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정부에 범인들을 기소하고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오픈도어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 모독에 대한 잘못된 기소는 폭동을 일으키고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곳의 주들은 샤리아 형법을 채택했다. 존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데보라 사무엘 사건과 신앙을 이유로 구금당하고, 납치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전세계 교회들에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의 현 상황을 알리고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는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의 중요성 만을 강조한다."

나이지리아는 최근 몇 년 동안에 폭력사태가 급증했다. 보코하람, 그 분파인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풀라니 무장세력과 같은 지하디스트 집단들 및 다양한 범죄 집단들과 군대의 역습은 수 십만 명이 살해당하고 최소 300만명이 내물몰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2022년에 나이지리아에서 5,000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오픈도어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종교적인 동기에 의한 살인의 90% 정도에 해당한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이 직면하는 폭력 정도에서 1위 국가를 기록했고 2023년 오픈도어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힘든 50개국) 월드와치리스트 6위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_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긴급한 호소

오픈도어 중동·북아프리카 사무실의 사무총장 토마스(필명)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희망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던 모든 생각들은 오픈도어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8년전 즈음 저희가 ‘중동에 희망을(H4ME: Hope for the Middle East)’ 캠페인을 준비하던 가운데 저는 중동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그들의 상황에 대해 모임을 했어요. 궁극적인 필요와 오픈도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자 “희망이요, 중동에 희망을 주는 것이요.”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이에 시작된 것이 바로 오픈도어의 ‘중동에 희망을(H4ME: Hope for the Middle East)’ 7년 캠페인입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 국가의 위협에 직면한 기독교인들과 전쟁, 내쫓김, 그리고 박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한 진정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통해 나타내 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며, 중심이 되어야 하죠. 오직 이를 통해서만 교회가 진정한 희망센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오픈도어 사역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계속되고 복음이 증진하도록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고 싶어요.”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하지만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해 씩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대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유럽이 국경을 봉쇄

해서, 아니면 이동할 돈이 없어서, 또는 부모들에 대한 책임으로 남아 있죠. 여전히 떠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럿 있어요. 저는 독일에 가고 싶어 독일을 공부하는 몇몇 시리아인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이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죠. 저희는 남아 있는 이들에게 기여해야 해요. 이들은 절망과 가망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해요.”

아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긴급한 호소입니다.

### 비전과 헌신

저희는 믿음을 통해 견디고 희망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들과 계속되는 위기로 인해 점점 더 견디는 것이 힘들어요. 저희가 이 위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젊은 때의 신앙 생활은 특히 더 지지





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거죠. 젊은 시민들로서 저희는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이곳이 깊은 구렁의 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을 굳게 믿고 있어요. 저희는 마치 중동이 흘리는 피와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저희는 기독교와 전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요청 : “희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는 아랍 세계에 남아 이곳에서 살고 기여하고자 하는 소속감과 책무가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와 절망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들을 위해 요청 드려요. “희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 **안전한 환경에서 탄탄한 교육이 준비되도록**

저희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릴 때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받아요. 차별 대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와 대학에서 등한시되죠. 어린 시절에는 언어 폭력을 당하고,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하고 또래 압력에 시달려요. 저희가 즐겁게 누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심리사회적 지지가 구조적으로 제공되도록**

저희 중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심리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해요.

여러 이유로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잃기도 했어요. 여기에 저희를 향한 차별은 저희에게 더 상처를 입히고 저희를 무너뜨려요.

### **전세계 교회의 역할이 확장될 수 있기를**

지난 10여년 동안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더 깊이, 이 이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느껴요.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더 많은 희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가져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장기적인 헌신을 기대해도 될까요? 저희는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외롭게 있으면서 세상에서 거의 잊혀진 것 같이 느껴요. 저희가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Arise Africa Campaign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본 캠페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함께 연합하며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기 위한 동역입니다. 저희가 동역하지 않으면 이곳의 교회들은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세계 교회들이 이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함께 일어서기를 기대합니다. 깨어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현재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오픈도어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만연해 있는 폭력에 맞서기 위해 캠페인활동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성도들 400만명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영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에 함께 맞서주세요.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지역의 폭력 상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Boko Haram), 이슬람국가(IS), 알샤바브(al-Shabaab)와 같은 극도의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그리고 말리와 같은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란과 강도 가운데서도 작전을 펼치며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가장 최근의 연간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170**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1,500** 기독교인들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대략적 추산

**2,714** 기독교인들은 납치를 당했습니다

###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번영하지 않았나요?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곳 보다 아프리카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 들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전혀 없는 맹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이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용기와 회복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홀로 견디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 이 폭력적인 박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영적 충격: 박해로 인해 보통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심지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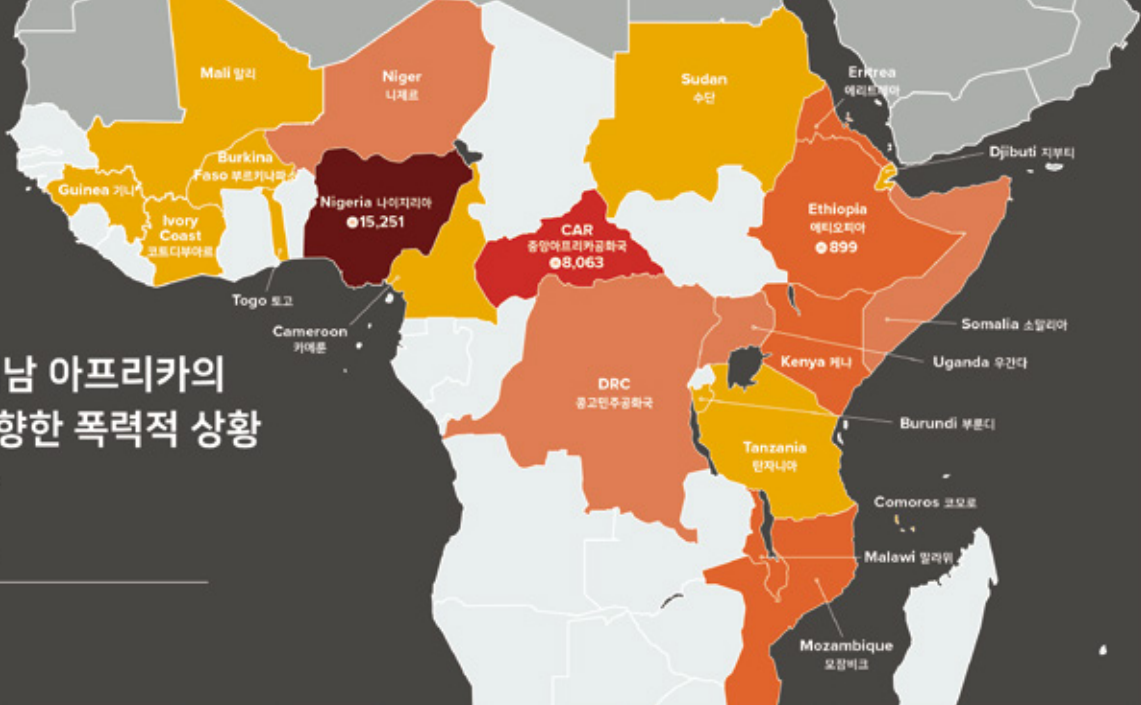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적 상황

● 기록 없음    ● 201-1000  
● 0-50    ● >8000  
● 51-200    ● >15,000

●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의 수

2022년도 확인된 현장 사건 데이터



위험한 사상들로 과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생존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서적 충격:** 폭력적인 박해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의 기회를 노려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우울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1200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들의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에 빠트렸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경제적 충격:** 극단주의자들은 생계를 훔치고 납치로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고 집을 망가뜨려 기독교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본 캠페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를 당한 모든 가족들을 영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교회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깨어 있고, 연합하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에 대해 충실하고 계속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더 연합하고 기독교인에게 행해지는 극심한 폭력과 그 영향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문제를 다루는데 더 충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률전문가들과 정부 관리들을 잘 갖추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오픈도어는 무슨 사역을 하나요?**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지지해왔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2022년에는 500,000명에게 다가갔고 성경 훈련, 사회경제적 지원,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교육/생계 훈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막대한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현장 사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확장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을 중심으로 사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정책 입안자들과 의사결정자들에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 ARISE AFRICA CAMPAIGN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Arise Africa Campaign)

동역자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주시고 연합하여 폭력적인 박해에 함께 맞서 주세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선물

- 25,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한 달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 60,000원으로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3명의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통한 치유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 160,000원으로 박해로 인해 실향민이 된 4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이외 긴급 구호를 선물합니다
- 270,000원으로 박해 받는 가정의 젊은이들 4명에게 일 년치 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프리카 후원 신청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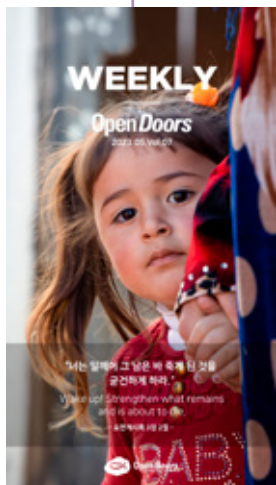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대표번호: 02-596-3171

## 오픈도어위클리 OpenDoors WEEKLY

4월부터 모바일 주간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개국에 대한 정보, 박해뉴스, 현장스토리,  
그리고 영상자료를 담은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고  
오픈도어 주간지를 받아보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



##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 어린이 박해지도

2023년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세계 기도 투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한국오픈도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6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설명회가 있으니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오픈도어 대표번호: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1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